에이아이스페라, 사우디 '샤말' 그룹과 MOU…  
중동 사이버보안 시장 진출 본격화

1. 기사 본문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에이아이스페라가, 글로벌 공격 표면 관리 시장에 진출하며 중동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의 샤말 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샤말 그룹은 에이아이스페라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사이버 자산 위협에 대한 교육과 대응을 강화하고, 에이아이스페라는 샤말 그룹이 운영하는 산업 인프라에 보안 기술 협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아이스페라의 크리미널 아이피 ASM은 SaaS 형태의 솔루션으로, 쉽게 도입하여 공격 표면을 탐지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 방법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AI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시보드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솔루션은 기업의 사이버 보안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키워드

- 공격 표면 관리(ASM: Attack Surface Management) 시장

기업의 사이버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는 조직이나 기업이 가진 인프라 및 시스템을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공격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나 기업은 자사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악성 IP(Criminal IP)

해커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IP 주소를 의미한다. ASM 솔루션은 이러한 악성 IP 주소를 탐지하여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나 기업은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URL - https://www.etnews.com/20230322000279